

No.131

Japan Weekly Digest

2012.5.26 ~ 2012.6.01

① 주간 경제 초점

- 엔·위안화의 직접거래 본격화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경제산업성, 전력선물시장 창설 검토
- 일본 제조업의 미얀마 진출 가속화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대한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 경제 초점 : 엔·위안화의 직접거래 본격화

□ 6월 1일부터 직거래 본격화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등 3대 메가은행 그룹은 6월 1일부터 도쿄시장에서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직접거래를 시작. 엔화가 달러 외에 주요 통화로 위안화와 직접거래를 본격화하기는 처음
- 도쿄거래시장에서는 참가은행이 단자회사를 통하여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비율을 제시할 예정이며 위안화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교환비율의 변동에 제한이 없음
- 미쓰비시도쿄UFJ에 의하면 도쿄시장에서 시작가격은 1위안=12엔 33전, 도쿄시장에서는 거래에 참가하는 은행들이 엔·위안의 교환비율을 서로 제시한 다음, 그것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짐
- 미쓰비시도쿄UFJ에서는 첫날 거래가 시작된 오전 9시 직후에 4000만엔의 엔화매도·위안화매입 주문. 달러를 매개로 한 전날 시세는 1위안 당 12엔 40전
- 상해시장에서는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매기별로 엔화에 대한 기준치(중간치)를 정함. 6월 1일 교환비율 변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게 되어 있음. 미 달러에 대해서는 위안화교환비율의 변동 폭은 상하 각각 1%이나, 달러 이외 통화는 상하 각각 3%,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거래에서도 상하 3%의 변동 폭이 적용
- 이제까지 엔화와 위안화의 교환은 주로 달러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로 직접거래가 확대되는 경우 달러로 교환 시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됨. 예를 들면, 중국 여행을 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엔을 위안화로 교환하기 위한 수수료가 인하될 공산이 큼
- 직접거래에는 일본의 3대 메가은행 외에, 중국의 대형은행인 중국은행, HSBC 등도 참가할 것으로 보임. 지금도 엔과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가능하나 은행측의 체제 미정비 등으로 엔과 위안화의 맞교환은 거의 전부가 달러를 매개로 하여 간접 결제되고 있음

□ 일·중 양국 정부가 시장 정비에 나서는 이유

- 일·중 양국은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엔화와 위안화의 거래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경제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금년 2월에는 재무성과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 민간은행들에게 체제정비를 촉구해 옴
- 중국으로서는 위안화거래에 달러를 개입시키지 않아도 됨. 달러에 의존하고 있으면 미국 외환당국 등의 정책 여하에 따라 달러거래가 차단되기도 하여 금융 면에서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아시아권에서 위안화표시로 결제가 확대되게 되면 그만큼 무역 면에서의 환리스크도 축소될 수 있음
- 직접거래를 통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원, 일·중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금융 면에서 지원. 일본은 양국 간 위안화의 유통량을 늘림으로써 경쟁상대인 영국보다 앞서 도쿄에 오프 쇼어(offshore)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효과

- 무엇보다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지금은 엔과 위안화를 교환하려면 엔을 유통량이 많은 달러로 바꾼 다음,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바꾸어야 하는 2중 부담이 있었음
- 직접거래로 이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가 절감되면 고객들은 그만큼 유리한 비율로 위안화의 매매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거래는 달러를 매개로 한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트가 저렴한데 환전 등 수수료 절감은 직접거래규모가 충분히 확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도 많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위안화 표시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나 위안화표시 금융상품 구입이 용이해질 전망.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면, 기업의 자금조달방법도 그만큼 확대되게 됨
- 일·중간 무역에서는 위안화 표시 거래가 1%이하에 그치고 있어, 환수수료 등 코스트가 부담이 되고 있음. 민간은행들은 교환비율을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촉진시키고, 엔·위안화의 직접거래는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로서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경제산업성, 전력선물시장 창설 검토

- 전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경제산업성이 포괄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력선물시장 창설, 전력도매시장 운영방식의 재검토, 전력회사의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 분리 등이 골자임
- 먼저, 전력회사나 신전력(특정규모전기사업 : PPS=PowerProducer & Supplier)가 전력을 매매하는 거래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임. 현재 거래량은 전체 전력소매액의 0.6%에 그치고 있어 거래량을 확대, 언제라도 전력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요금의 안정을 기한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전력의 대형수요처인 기업 등이 전력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을 피할 수 있게 함. 수개월 후에 결제하는 전력선물을 미리 사두게 되면, 선물의 매각이익으로 전력가격 상승에 따른 코스트증가를 보전할 수 있게 됨
 - 전력회사로서는 전력공급 과다로 인한 가격하락시 손실을 선물거래로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전력의 선물거래는 유럽의 전력거래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음
- 전력의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일본도매전력거래소의 운영방법도 변경. 거래소는 전력회사의 출자비율이 80~90%를 점하고 임원들도 전력회사 출신이 많음
 - 전력개혁위원회도 도매시장이 전력회사에 의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임. 경제산업성은 출자금을 전력회사에 상환, 임원들도 교체하도록 거래소에 요청할 방침
- 이와 함께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력회사로 하여금 도매시장에서의 전력매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시장에서 매입주문과 매도주문이 다같이 활성화되어 거래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함
- 발전분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제도설계 작업을 추진. 전력회사가 가진 송배전망을 공공재로 설정하여 누구라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전력 등의 신규진입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임
 -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로부터 송배전망의 운용을 분리하는 기능분리나 아니면, 송배전부문을 분사화하는 법적분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검토
- 경제산업성이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전력소매를 가정까지를 포함, 전면 자유화하여 발전분야의 규제도 철폐하는 데 배경이 있음
 - 신전력이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대형수요처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은 지침을 정하여 촉진한다는 방침. 전력회사가 신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그 요금도 재검토할 방침임

□ 일본 제조업의 미얀마 진출 가속화

- 일본 제조업의 미얀마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미얀마 진출은 유통업이 중심이었음
-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스즈자동차가 미얀마에서 금년 중에 트럭공장을 인수 생산에 착수
- 이스즈는 미얀마 국영기업인 퍼스트오토모티브 주식의 약 60%를 취득, 양곤에 있는 공장에서 소형트럭 및 픽업트럭을 생산할 예정.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 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이 현지생산을 시작하기는 최초
 - 투자액은 수 천억엔으로 우선 연간 1천대 규모로 생산을 개시. 부품은 동사의 아시아 최대 생산거점이 있는 태국에서 공급받을 방침. 판매상황에 맞추어 생산설비를 증강, 장래 수 만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리나 점검 등 A/S의 거점 정비도 진행시킬 계획임
- 자동차 분야에서는 스즈키도 1998년에 미얀마에서 합작기업을 설립, 2008년에는 2륜차를 약 3000대, 4륜차를 1000대정도 생산하였으나, 2010년말 생산을 중지. 동사는 그 후도 주재원을 상주시키면서 생산재개 검토에 착수함
- 히노자동차 및 미쓰비시후소우 트럭·버스도 민주화 진전으로 장래 성장전망이 밝다고 보고, 현지생산을 검토. 미국, 유럽, 한국보다 먼저 진출하려는 계획임
- 이외에 부품메이커로서는 도요타방직, 차체기기를 생산하는 파이오니어도 미얀마 진출을 검토 중
-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메이커들의 진출은 미얀마에서 일본의 제조업 집적을 촉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
- JETRO에 의하면 미얀마(양곤)의 일반 공장노동자의 월급은 68달러로 태국이나 중국의 1/4이하 수준임.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래 미얀마가 아시아의 수출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스미토모화학	2012.5.26	석유화학설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람코	자본제휴/세계 최대석유화학 사업「피트로라빅」에 추가 투자, 투자규모 5600억엔
다케다약품 공업	2012.5.26	제약	브라질/멀티러 브	직접투자/중견제약회사멀티 러브를 200억엔에 매수
캠코마요네즈	2012.5.27	식품	인도네시아/자 화콘피드	자본제휴/합자기업설립, 자본금 5억엔 합작비율 49%
소니	2012.5.27	전자	브라질	직접투자/기존 공장 확충, 투자규모 200억엔
닛산자동차	2012.5.29	자동차	중국	직접투자/생산능력증강, 투자규모 250억엔
일본전산	2012.5.29	하드 디스크 구동장치	캄보디아/말레 이시아	직접투자/HDD부품공장설립, 투자규모 50억엔
이스즈	2012.5.30	트럭	미얀마/퍼스트 오토모티브	직접투자/주식의 60%취득
가와사키중 공업	2012.5.31	2륜차	동남아시아	직접투자/2륜차 생산공장의 신·증설, 투자규모 90억엔
덴츠	2012.5.31	광고	싱가포르	직접투자/인터넷광고전문회 사 설립
하쿠호도 DY홀딩스	2012.5.31	R&D	중국	직접투자/연구소 설립
NEC	2012.5.31	IT	호주/CSG	직접투자/CSG서비스즈와 IT 관련컨설팅부문 등을 매수, 총매수가 200억엔정도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1) 『회토류 충격으로 보는 일·중무역의 과제』 미쯔비시UFJ리서치·컨설팅, 5월26일

*출처:http://www.murc.jp/politics_c1/search_now/2012/05/sn_120525.html

(2) 『일본 금융업의 현황과 전망』 금융청, 5월29일

*출처:http://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120528-1/01.pdf

(2) 『일본기업의 구조변화 : 경영전략·내부조직·기업행동』 경제산업연구소, 5월30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2j017.pdf>

(4) 『유통업의 국제전개 현황과 향후 대응 : 산업구조심의회유통부회』 경제산업성, 5월31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ryutsu/pdf/003_04_00.pdf

(5) 『일·한산업구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분석』 경제산업성, 5월31일

*출처: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2fy/E002069.pdf

(6) 『경제사회비전 : 가격경쟁으로부터 가치창조경제로, 산업구조심의회·신산업구조부회』 경제산업성, 6월1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sangyou/pdf/007_02_00.pdf